

집합주택의 외장색채 언어이미지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Visual Impression Related to the Exterior Color of Apartments

김진영

큐슈대학 대학원 예술공학부 예술공학전공

Kim, Jin-Young

Graduate School of Design, KU

김영미

숙명여자대학교 기업정보디자인센터

Kim, Young-Mee

Corporate Communication Design Center, SMU

사토 마사루

큐슈대학 대학원 예술공학연구원

Sato, Masaru

Faculty of Design, KU

• Key words: Color Planning, Apartment House, Landscape

1. 서론

한국은 경제발전에 의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중심의 신도시가 개발되고 있다. 한국의 건설회사는 아파트브랜드에 따라 동일한 패턴의 외장색채를 사용하므로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지역은 일률적인 도시경관이 형성되는 문제점이 발생된다.

매력적인 도시경관은 지역의 개성을 표현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자부심을 갖게 해준다. 더 나아가 시민 공유의 재산이 되고 아이들의 풍부한 감성을 길러준다.

건설교통부가 주최한 「2004년 지속가능한 도시대상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경기도 과천시를 대상으로 8, 9단지 집합주택의 외장색채 언어이미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경관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색채는 개인의 취향이나 국민성에 의해서도 달라진다. 집합주택의 외장색채 이미지를 언어화하여 집계한 결과 한국인과 일본인의 인식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경기도 과천시 8, 9단지를 대상으로 한국에서는 2005년 1월부터 4월까지 과천시 주민 124명, 일본에서는 사진을 통한 조사방법으로 2005년 6월 후쿠오카 시민 111명에게 집합주택의 외장색채 언어이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재 집합주택의 외장색채가 어떤 색으로 인식되고 장래에 색을 바꾼다면 어떤 색으로 할 것인지 면셀표색계로 조사하고 어떤 이미지를 주는 지 형용사와 동사로 데이터를 집계하여 객관화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지역과 조화하며 아파트의 가치를 높이는 등 거주자와 방문자들에게 친근한 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집합주택의 외장색채 언어이미지 조사

집합주택의 외장색채 언어이미지 조사는 개인 기호에 따라 주관적으로 느끼는 색을 객관화하기 위해 단어로 집계한다.

과천시는 12개 단지가 있다. 그 중 고층과 저층이 근접해 있는 「8, 9단지」의 외장색채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는지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아파트의 외장색채가 어떤 색입니까」로 면셀표색계에서 한가지 색을 선택한다. 「그 색은 어떤 이미지입니까」 형용사 또는 동사로 집계한다. 「8, 9단지의 색을 바꾼다면 어떤 색입니까」로 면셀표색계에서 한가지 색을 선택

한다. 「색이 바뀌면 이미지도 바뀌는데 어떤 이미지로 바뀌고 생각 합니까」를 형용사 또는 동사로 집계한다.

3-1. 「8단지」 현재 외장색채 언어이미지 조사 분석

「8단지」는 Y, YR계의 3가지 색이 조합된 15층 아파트로 한국인 68명과 일본인 58명을 대상으로 외장색채 언어이미지 조사를 하였다. 한국인의 경우 아파트 기초색인 5Y9/1로 인식하는 사람은 0명이었다. 포인트 색인 10RP8/4이라고 대답한 피험자는 10명, 5RP6/8로 대답한 피험자는 12명이다. 이것은 아파트 외장색채의 기초색보다 포인트 색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피험자가 인식한 색의 명도의 경우 90% 이상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채도의 경우는 본래의 색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인의 경우, 인쇄물인 사진으로 조사한 것으로 색채인지에 대한 조사가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현재의 외장색채 언어이미지조사 결과 한국인의 경우는 「촌스럽다」 14명, 「밝다」, 「화사하다」 각 8명, 「튀다」, 「따뜻하다」 각 6명, 「칙칙하다」 5명, 「편안하다」, 「평범하다」, 「여성적인」, 「답답하다」, 「차분하다」 각 3명, 「부드럽다」, 「깨끗하다」 2명, 「좋다」, 「딱딱하다」 각 1명이다. 일본인의 경우 「예쁘다」 15명, 「튀다」 11명, 「밝다」 6명, 「부드럽다」 4명, 「상냥하다」, 「따뜻하다」 각 3명, 「선명하다」 2명, 「장난감 같다」, 「여성적인」, 「현란하다」, 「모던하다」, 「낮은」, 「통일감있다」, 「가족적인」, 「외로운」, 「어둡다」, 「싸다」, 「강하다」, 「심플하다」, 「화려하다」, 「평범하다」 1명이다.

3-2. 「9단지」 현재 외장색채 언어이미지 조사 분석

「9단지」는 기초색 10Y9/2와 포인트색 5GY7/4의 2가지 색이 조합된 5층 아파트로 한국인 56명, 일본인 53명을 대상으로 외장색채 언어이미지조사를 하였다. 조사 결과 한국인의 경우 색상은 10Y와 5GY이지만 인지하고 있는 색상의 범위는 5GY를 중심으로 10YR에서 5BG까지 다양하였다. 이것은 저채도의 경우 색상의 인지력이 낮아진다고 해석된다. 전체 피험자가 인지하는 색의 명도는 80% 이상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나, 채도의 경우 8단지의 경우와 같이 본래의 색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장색채 언어이미지 조사 결과 한국인의 경우는 18개 단어

